

2023-06

Playground for music teachers
MUSICTLAND
vol. 4

새로운 에디터
새로운 기사와 새로운 시각
한층 다채로운 뮤직트렌드를 만나보자

다시 돌아온 대중음악사
R&B의 역사를 알아보자

지휘법, 해금, 붐웨커,
영역을 가리지 않는
리얼한 수업 후기

만든이. 에디터 홍정선
에디터 노혜원
에디터 이지영
에디터 전진우
에디터 전상진
에디터 김서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전하는
실용적인 팁
내일 당장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수업을 넘어서 교사를 위한
연주회 추천까지



2023-06



안녕하세요, 뮤직T랜드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 진단'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없던 도전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23년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은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니체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음악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1년이 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낸 뮤직T랜드도 4호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여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뮤직T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뮤직T랜드'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음악 교사가 함께 놀며 소통하는 이곳,
뮤직T랜드 4호에서 다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세요. :D

CONTENTS



수업시간 ON

TMI Thankful Music Information : 카르멘 서곡

분위커로 놀아보자

함께 읽어요 '난처한 클래식 수업'

지휘법 수업 후기

대중음악사 3 : 세계를 정복한 R&B



수업시간 OFF

화가와 작곡가 2 : 고흐와 드뷔시

연습용 기타 프렛보드 리뷰

[인터뷰] 음악교사연주단체 : 아인클랑

현직교사들의
수업 아이디어



수업시간 ON

PUBLISHED BY
MUSICTLAND

전상진 음악샘의
THANKFUL MUSIC INFORMATION
: **CARMEN OVERTURE**

Recommended:
Anytime, Anywhere, Anyone

MORE INFO AND
social media:
Instagram  im._.sangjin

알고 들으면 고마운 T_hankful M_usic I_nformation

: 카르멘 서곡

에디터. 전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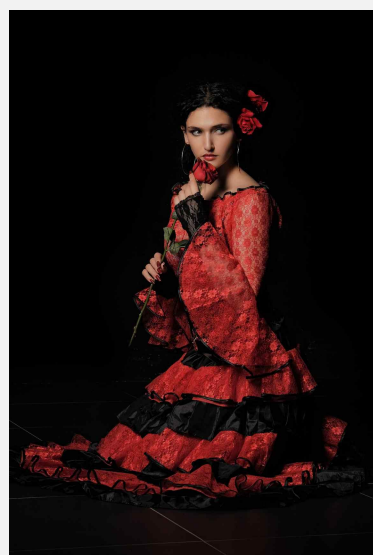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앞부분에는 책장에서 책이 뜬금없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의 수수께끼는 뒷부분에 가서 그 퍼즐이 맞춰집니다. 앞에서 던진 연출의 의미를 작품 뒤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을 보았을 때, 감

독이 영화 전체적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치밀하게 만들어졌는지, 한 장면이나 설정을 의도하여 설계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페라 “카르멘”에서 발견합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에서 작곡가 비제의 설계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곡을 듣고 오페라 전곡을 들었을 때, 이 서곡이 오페라 전체의 스토리에 대한 분위기와 이야기를 압축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들으면 더욱 재밌어 고마운 카르멘 서곡 속의 TM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카르멘 서곡'은 단지 서곡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작곡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의 오페라 서곡은 단순히 감상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 아니라, 오페라 속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 바그너의 “탄호이저”와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음악을 서곡으로 가져와 썼습니다. 비제의 “카르멘”에서는 4막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Les voici! Voici le quadrille!(투우사들이 들어온다!-이하 '투우장의 합창')”에서 가져와 사용한 것입니다. '카르멘 서곡'은 '투우장의 합창'을 차용하여 화려한 피날레로 종지한 후 '운명의 주제'라는 것이 연주됩니다. '카르멘 서곡'에서 보이는 '투우장의 합창'과 '운명의 주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은 이 두 포인트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카르멘 서곡'의 구성

'투우장의 합창'



'운명의 주제'

Chapter 1. '투우장의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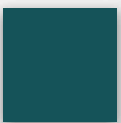
아래에 제시된 도표는 '카르멘 서곡'과 '투우장의 합창'의 악곡 형식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카르멘 서곡'은 론도 형식이고 '투우장의 합창'은 조금 더 확장된 론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서곡' 형식
A-B-A-C-A



'투우장의 합창' 형식
A-B-A-C-D-A



'투우장의 합창' A 부분은 '카르멘' 서

곡'의 A 부분과 같고 가사의 내용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페라 전체에서 투우장의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또 역설되게도 이 신나고 활기찬 A 부분은 극 중에서 슬픔과 분노, 대립이 최고치로 올라간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카르멘을 잡으려는 호세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카르멘의 갈등이 고조되어 호세가 칼을 뽑기 전 대치하는 그때, 멀리서 A 부분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연출은 호세와 카르멘의 마음도 모른 채 야속하게도 신나게 투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듯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realism) 특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 Les voici! Voici la quadrille!
Le quadrille des toreros.

Sur les lances, le soleil brille!
En l'air toques et sombreros!

Les voici, voici la quadrille,
Le quadrille des toreros!”

“투우사의 팀인
카드릴라가 도착했네.

태양이 창과 모자와
솜브레로를 위해 빛나네.

투우사의 팀 카드릴라가 도착했네.”



'투우장의 합창' B 부분은 오페라 전체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곡에서도 사용된 부분입니다. '투우장의 합창' B 부분의 선율과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Voici, debouchant sur la place, voici d'abord,
marchant au pas, L'alguaizil a vilaine face.
A bas! a bas! a bas! a bas!

자, 못생긴 보안관이 광장으로 들어오는구나.
무엇보다도 보조를 맞추어라.
쫓아내라, 쫓아내.



'투우장의 합창' C 부분은 서곡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비제가 이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서곡과의 차별화를 두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한 서곡의 멜로디 가운데 신선한 새 음악이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투우장의 합창' C 부분의 선율과 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Et puis saluons au passage, Saluons les hardis chulos!
Bravo! viva! gloire au courage!
Voyez les banderilleros,

Voyez quel air de cranerie! Quels regards,
et de quel éclat Etincelle la broderie
De leur costume de combat!

그들이 지나갈 때 용감한 쥬로들을 환영하자.
만세! 만세! 그들의 용감함에 만세!
반테리에로를 보라!

보라, 그들의 멋진 모습과 눈빛을,
그들 싸움옷의 장식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를!



'투우장의 합창' D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에스카미요의 아리아, <투우사의 노래>입니다. D 부분은 서곡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에스카미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오페라 전체에 걸쳐 에스카미요의 테마곡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카미요가 등장하고 퇴장할 때 모두 이 부분이 연주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호세가 결국 카르멘을 칼로 살해하는 그 장면에서 배경 음악처럼 깔립니다. 투우장 안에서는 에스카미요가 투우를 죽이고 있고, 투우장 밖에서는 호세가 카르멘을 죽이는 장면을 함께 보여 주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Une autre quadrille s'avance!
Voyez les picadors! Comme ils sont beaux! Comme ils
vont du fer de leur lance Harceler le flanc des taureaux!
L'Espada! Escamillo!

C'est l'Espada, la fine lame, Celui qui vient terminer
tout, Qui paraît à la fin du drame
Et qui frappe le dernier coup! Vive Escamillo! Vive
Escamillo! Escamillo, bravo!

또다른 카드릴라가 다가온다. 피카도르를 좀 봐,
참 잘들 생겼네!
그들은 창끝으로 황소 옆구리를 찌를 거야!
검객이다! 에스카미요다!

저 투우사는 검사이고,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 사람이다.
그는 경기 마지막에 등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만세! 에스카미요 만세! 에스카미요 만세!



Chapter 2. '운명의 주제'

'카르멘 서곡'의 음원 혹은 악보에 근거했을 때, '투우장의 합창' 부분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했음에도 서곡이 끝나지 않고 G.P.(게네랄파우제)로 잠시 침묵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3/4박자의 증2도가 특징적인 선율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카르멘의 불행한 운명을 암시하는 주제'로 불립니다. 흔히 '운명의 주제'라고도 불리는 부분이죠. 이 '운명의 주제'는 앞선 '카르멘 서곡'의 '투우장의 합창'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운명의 주제'는 오페라 전체에 걸쳐 총 5번 등장하는데, 카르멘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견하는 듯한 부분에서 연주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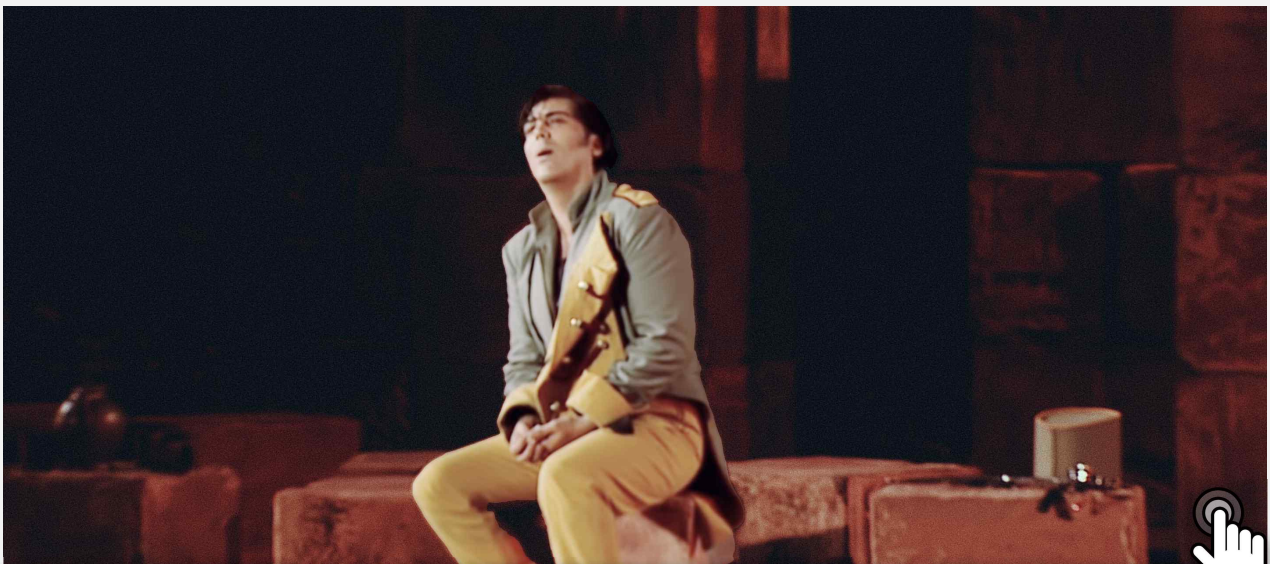
첫 번째 등장: 카르멘의 등장

“Mais nous ne voyons pas la Carmencita!(우린 카르멘시타를 볼 수 없구나!)”에서 카르멘이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에 '운명의 주제'가 연주되며, 같은 장소에 돈 호세가 등장하는 순간에도 짧게 연주됩니다. 이는 카르멘과 호세의 만남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등장: 꽃노래의 전주

호세는 군인으로서의 삶과 카르멘과 함께할 집시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합니다. 이때 나오는 곡이 '꽃노래'로도 알려진 유명한 호세의 아리아 'La fleur que tu m'avais jetee(당신이 나에게 던져준 꽃을)'이며, '운명의 동기'는 이 곡의 전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운명의 주제'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사용된 것보다 부드럽고 또 슬프게 연주됩니다. '꽃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La fleur que tu m'avais jetee
Dans ma prison m'était restée,
Fletrie et sèche,
Cette fleur gardait toujours sa douce odeur;
Et pendant des heures entières,
Sur mes yeux, fermant mes paupières,
De cette odeur je m'enivrais
Et dans la nuit je te voyais!
Je me prenais à te maudire,
À te détester, à me dire:
Pourquoi faut-il que le destin
L'ait mise là sur mon chemin!
Puis je m'accusais de blasphème,
Et je ne sentais en moi-même,
Qu'un seul désir, un seul désir,
Te revoir, ô Carmen, oui, te revoir!
Car tu n'avais eu qu'à paraître,
Qu'à jeter un regard sur moi,
Pour t'emparer de tout mon être,
O, ma Carmen!
Et j'étais une chose à toi!
Carmen, je t'aime!

당신이 나에게 던져준 꽃을
감옥에서도 간직하고 있었다오.
마르고 시들었지만
이 꽃을 달콤한 향기를 계속 품고 있었소.
난 몇 시간이고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맡았고
밤이면 당신을 떠올렸어요.
난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왜 운명이 나를 당신과 만나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묻기도 했소.
그러자 당신을 욕한 것이 후회되었고
카르멘,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오직 한 바람, 오직 한 희망만이 솟구쳤다오.
그래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당신은 단지 모습을 보이고
눈짓 한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오.
나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오, 나의 카르멘.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
카르멘, 사랑하오.

세 번째 등장: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된 카르멘

'운명의 주제'는 “Carreau! Pique!...la mort!(다이아몬드! 스페이스!...죽음!)”에서 사용됩니다. 카르멘은 자신의 운명을 카드로 점쳐보지만 몇 번을 다시 점쳐 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등장: 카르멘과 호세가 이별하는 장면

3막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에스카미요와 한바탕 싸운 호세는 카르멘의 질타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때 미카엘라가 등장하여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분한 감정을 가진 채로 카르멘을 바라보며 “Sois contente... je pars... mais... nous nous reverrons!(당신 흡족하겠군. 가긴 하지만 우린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거야”라고 외치고 떠나는데, 이 장면에서 '운명의 주제'가 연주됩니다. 이것은 카르멘과 호세의 재회 할 것과 그 재회의 때에는 카르멘의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등장: 호세가 카르멘을 죽이는 장면

4막 중에서도 마지막 곡인 “C'est toi! C'est moi! (그래, 당신인가요! 그렇소, 나요!)”에서 등장합니다. 호세는 카르멘을 ‘모두 용서하겠다’,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하면서 카르멘을 회유합니다. 카르멘은 얼마 전 알게 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사람은 호세이며, 이 제의를 거절한다면 자신은 죽으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카르멘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유롭게 죽길 원하는 새이자 집시. 죽음의 두려움은 그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카르멘은 호세가 준 반지를 던지며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호세는 “Ainsi, le salut de mon ame Je l'aurai perdu pour que toi, Pour que tu t'en ailles, infame, Entre ses bras rire de moi? (그럼 난 왜 영혼의 구원을 잃었나, 이 배신자가 그의 품으로 달려가 나를 조롱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며 단검을 뽑는데, 이때 카르멘의 '운명의 주제'가 연주됩니다. 이윽고 호세는 자신이 선물한 반지를 던지는 카르멘을 향해 돌진하여 그녀의 몸에 단검을 찔러 넣은 후 단검을 그녀의 몸에서 뽑아내는 순간, 지금까지 등장한 것 중 가장 강렬한 연주로 '운명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글을 준비하며 느낀 점

이 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오페라 “카르멘”의 줄거리는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나 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전곡은 자주 들었지만, 프랑스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대략 추측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저는 “카르멘”의 전곡을 대본을 읽으며 감상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하던 미카엘라와 돈 호세의 이야기도 알 수 있었고,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 대본에 음악을 붙여넣어 생동감 있고 감동적인 오페라를 만들어 낸 작곡가 비제의 천재성에 놀랐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도 대본과 함께 오페라를 감상해 보시고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카르멘”을 다루는 수업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Et cetra.

호세와 카르멘 사랑의 온도차

오페라 카르멘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 Aimer와 Adorer라는 단어가 섞여 쓰입니다. 둘 다 사랑을 의미하지만 Aimer는 ‘좋아하다, 애호하다’ 정도의 뜻이고, Adorer는 더욱 강한 표현인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는 카르멘에게 “Aimer”라고 말하다 나중에는 이를 부정하고 “Adorer”라며 고백하지만, 카르멘은 호세에게 Aimer라는 사랑의 표현만 합니다.

추천하는 오페라 카르멘 영상



고음질의 음악과 뛰어난 무대 의상 및 장치로 귀와 눈이 즐겁습니다.
단점이라면 오페라 중에서 몇 곡을 제외하고 연주합니다.
덕분에 영상 시간도 1시간 30분정도입니다
<https://youtu.be/xJKFi5gm06A>



노블리트오페라단의 연주입니다.
훌륭한 무대가 감상을 즐겁게 해주지만, 무엇보다 한국어 자막이 지
원이 되어 감상하기 좋습니다
https://youtu.be/SwWmWaW_xsI



앞에서 소개했던 '투우장의 함창'을 번역한 영상입니다. 투우 문화
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재미있습니다
https://youtu.be/SwWmWaW_xsI

영상 출처

인터스텔라: Youtube, [OneVIEW](#).

카르멘 영상: Youtube, [Faces of Classical Music - 3](#).

우리 시험도 끝나는데 뽀뽀 8음계로 놀아 보자

음악 수행 평가도 끝나고, 기말고사도 끝난 학기 말 음악 수업 시간
뭘 해도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한다.
결국 올해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아, 재는 초등학교 때 본 거 란다.
재는 좀 보더니 잔다.
뭔가... 신나는 거 없을까?

뽀뽀 8음계란?

뽀뽀는 길쭉한 파이프 모양으로 생겼다. 길이에 따라 음계를 연주할 수 있고, 딱딱한 바닥이나 책상, 또는 신체에 내려치면 소리가 나는 매우 원초적인 악기이다. 올림이 약해서 공연용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지만 한바탕 놀기에는 최적화된 악기인 것 같다.

뽀뽀는 '모*스쿨'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했다. 원래 학교에 8음계 뽀뽀가 6세트 구비되어 있어서 반음계와 높은 옥타브 등 필요한 악기는 추가로 구매했다. 뽀뽀의 모든 세트를 갖추면 C부터 G2까지 32음이며 32음 세트는 20만 원 정도였다. 베이스 악기가 꽤 커서 가격도 비싼 모양이다.

간단한 동요는 8음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마음에 드는 곡은 꼭 반음계 한 음이나 한 옥타브 높은 '레'가 나온다. 그래서 반음계가 포함된 13음 정도는 구비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나는 8음계로 수업을 시작했다가 다음 주에 반음계 세트를 구매하고, 그다음 주엔 소프라노 세트를 구매했다. 나중엔 베이스까지 구매해서 결국 모든 세트를 구매해 버렸다.



8음계 뽀뽀 1세트 ₩28,000



32음계 뽀뽀 1세트 ₩199,500

수업하기

사전 준비

모든 기악 수업이 다 그렇겠지만 봄웨커 수업은 특히 수업 사전 준비가 중요한 수업이었다. 악기가 워낙 많고 조별로 연주를 해야 하다 보니 악기 세팅부터 자리 배치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 자리 배치 >



아무도 재우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목표인 수업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에도 고민이 많았다. 한 조에서 다섯 파트를 한 명씩 맡아서 연주하도록 하자니 조별로 실력이나 참여도 면에서 격차가 심할 것 같았고, 조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 다른 파트를 연주하게 되니 악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따라 오지 못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왼쪽 그림과 같은 배치이다. 파트별로 모여 있으니 옆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기도 편하고, 다 함께 연주하는 수업의 취지에도 잘 맞았다. 추가로 연주의 편의성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앉으니 수건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도란도란 즐거운 분위기도 물씬 느껴졌다.

< 악기 세팅 >

먼저 악곡에 사용되는 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악기를 세팅해야 한다. 이번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윌리엄 텔" 서곡은 C1, D1, E1, F1, G1, A1, B1, C2, D2 총 9개 음이 필요하다.

파트 분배는 우측의 표와 같이 했다. 그리고 파트별로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악기도 음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고 파트 별로 필요한 악기를 모아 두었다.

PART 1	C1
PART 2	D1, B1
PART 3	E1, A1
PART 4	F1, G1
PART 5	C2, D2

* < 도입 >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으면 파트를 지정하고 원 중앙에 놓인 악기를 가져가도록 한다. '빨간색 악기 가져가세요~' 이렇게 색깔로 알려 주니 계이름을 잘 몰라도 척척 잘 가져간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악기를 탐색하도록 했다. 마지막 질문을 할 때는 해당 악기를 바닥에 내려쳐 소리를 내게 해 본다. 그리고 박자에 맞추어 도부터 높은 레까지 순서대로 연주하게 한다.

1. 어떻게 생겼나요?
2.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날까요?
3. 빨간색 악기와 초록색 악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4. 어떤 악기가 가장 낮은 음(높은 음)인가요?
5. 낮은 음부터 순서대로 계이름을 말해 볼까요?

< 전개 >

1. 악곡 소개 "윌리엄 텔" 서곡
 - 제목만 말해 주면 알쏭달쏭해 하지만 들려주면 다들 익숙해한다.
2. "윌리엄 텔" 서곡 계이름 읽어 주기
 - 다장조로 편곡된 악곡의 계이름을 불러 준다.
 - 자기 파트가 어디인지 주의 깊게 들어라고 지시한다.
3. 파트 연습하기
 - 계이름을 부르며 파트별로 시범을 보이고 반복 연습한다.
 - 8마디 파트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해 본 뒤 다음 8마디 진도를 나간다.



▲ 파트 연습 영상

< 마무리 >



▲ "윌리엄 텔" 서곡 연주 영상

수업의 마무리는 배운 데까지 함께 연주하고 영상을 찍어 다 같이 감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영상을 찍고 있으니 더욱 집중하려 하고 다음 차시에 대한 의지도 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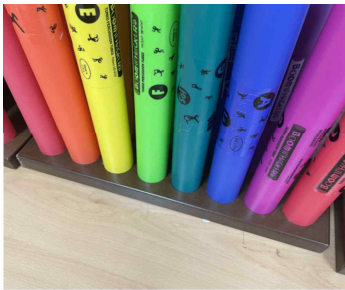
"윌리엄 텔" 서곡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 기준 2차시에 걸쳐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왜 그리 빨라지는 건지...

합주 시 반주 음원은 들지 않았다. 봄웨커가 울림이 좋은 악기가 아니다 보니 반주 음원을 틀고 연주할 경우에는 톱톡거리는 플라스틱 소리만 크게 들렸다. 대신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렸다.

수업 후기

의도한 대로 학생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파트별 활동과 반 전체 활동이라 재미가 있기도 하고 붐웨커의 연주법이 쉽고 단순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다만 교사의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아무리 울림이 적은 악기라 해도 많은 학생들이 연습하다 보니 마이크는 필수이다. 두 손으로 연주해야 해서 헤드 마이크를 쓰면 더 편리할 것 같다. 나는 가장 활발하고 친화력이 좋은 아이에게 인간 마이크 거치대 역할을 시켰더니 선생님 오른팔이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귀여웠다.

상품 소개



붐웨커 스탠드 ₩25,900

악기 정리를 위해 스탠드를 몇 개 구입했었다.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13음을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소프라노 악기까지 구입하고 나니 스탠드로는 역부족이었다. 지금은 상시로 붐웨커를 정리하는 용도라기보다 그때그때 수업에 필요한 음을 골라 아이들이 가져가기 좋게 두는 용도로 사용한다.



요가 매트 정리함 ₩110,000

붐웨커는 길고 가벼워서 세워 두면 쓰러지고, 높혀 두면 정리가 안 되어 보인다. 칸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요가 매트 정리함은 붐웨커를 정리하기 최적이다. 철제로 된 조금 저렴한 것도 있으니 요가 매트 정리함으로 검색해 보길.



붐웨커 캡 1세트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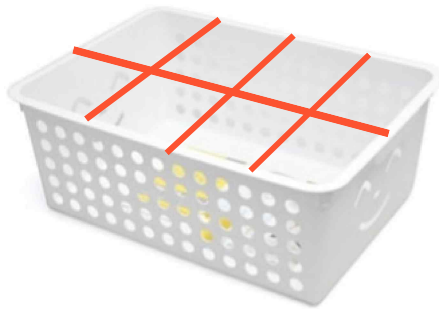
옥타브를 조정할 수 있는 붐웨커 캡, 끝에 끼우면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난다. 그렇지만 중간 음역과 베이스 음역이 모두 필요한 경우 악기가 부족할 수 있고, 원래 좋지 않은 울림이 더욱 안 좋아진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베이스 한 음 정도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싼 베이스 악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부록1-악기정리하기



다른 음악 선생님들께서는 파란 쓰레기통을 사용하거나 붐웨커 전용으로 나온 검은색 부직포 가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오늘 요가 매트 정리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다란 무언가를 쓰러지지 않게 정리하는 것에 제대로 꽂혀있던 나는 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헬스장에서 요가 매트 정리함을 발견하고 폭풍 검색 후 바로 주문을 하기에 이른다.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다. 조립이 셀프라니... 기술 가정 선생님께 전동 드릴을 빌려 열심히 조립했다. 원래는 완성을 하면 열다섯 칸이 나오는 정리함이지만 나는 조립 시 세로로 칸을 나누어 주는 판 두 개를 일부러 빼고 조립해서 아홉 칸짜리 정리함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베이스부터 순서대로 악기를 넣어 보기 좋게 정리했다.



소프라노 악기는 너무 짧아서 요가 매트 정리함에 정리할 수 없었다. 음악실 뒤편 악기 보관실에서 다이소에 팔 법한 사각형 바구니를 하나 찾아 테이프로 감아 8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에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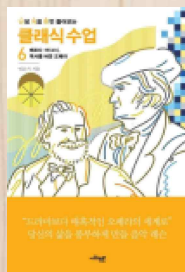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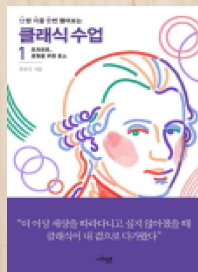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붐웨커 존이 탄생했다. 칸마다 음이름을 적어 두거나 색깔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이 쉽게 악기를 준비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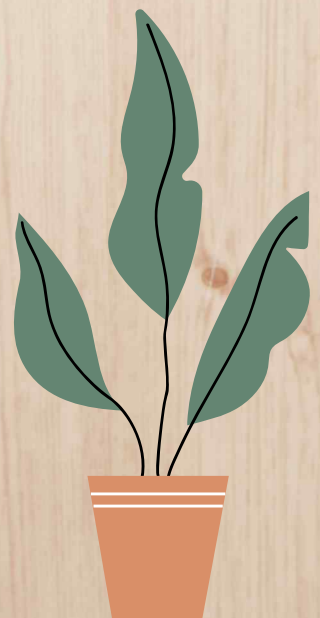
함께 읽어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에디터. 이지영



좋은 책, 좋은 글을 발견하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미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혹시 저처럼 늦게 접하실 선생님을
위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수능 감독을 갔던 학교에서였습니다. 감독관 대기 장소가 도서관이었고 예술 분야에 꽂혀있던 '클래식 수업'을 보았죠. 표지에 이끌려 책장을 넘겼고 생각보다 술술 읽히는 내용에 나중에 책을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은 많습니다. 그런 책 중에 유독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학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에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러 왔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교양서적의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물론 번역본임이 느껴지는 용어와 문장으로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설명해준 후 제가 소장하고 있던 <클래식 수업> 1권을 빌려줬고 그 학생은 이틀 만에 다 읽고 책을 돌려줬어요. 정말 재미있다고 다음 권도 궁금하다고 소감을 말하는 학생을 보면서 이 책에 대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수업>은 현재 6권까지 발행되었는데, 1권과 6권의 구성을 예시로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권 모차르트, 영원을 위한 호소

클래식, 음악의 정의

1권을 펼쳤을 때 당연히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거라 생각했지만, 첫 장을 장식한 내용은 클래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클래식이 어려운 이유, 클래식의 특수성 등 우리가 알고있는 '클래식'이란 단어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그 다음은 음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전 사실 이 부분을 읽고 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 일화와 함께하는 음악이론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으로 알려져 있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표곡을 소개하면서 악곡에 쓰인 형식도 함께 설명됩니다. 그리고 고전파 시대의 대표 악기인 피아노의 소개도 함께 합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이론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서술되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답 형식의 내용 구성

'음악은 작곡가의 감정을 담는 게 아닌가요?'

'카덴차가 연주자의 즉흥 연주라면 들을 때마다 다르겠네요?'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을 질문으로 두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흥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6권 베르디·바그너, 역사를 바꾼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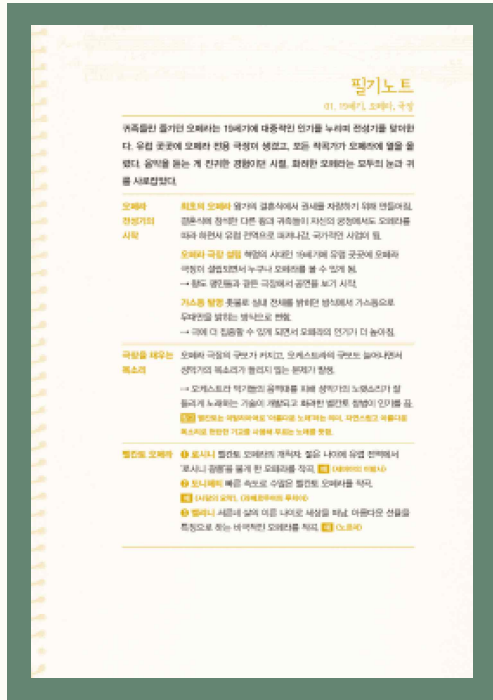
필기 노트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주요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6권에서는 오페라 전성기의 시작, 벨칸토 창법이 인기 있게 된 이유,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 및 작품이 정리되어 있어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감상곡 큐알코드 제공

책에서 소개되는 악곡에 대한 큐알코드가 있어서 악곡을 감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6권의 경우 90여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기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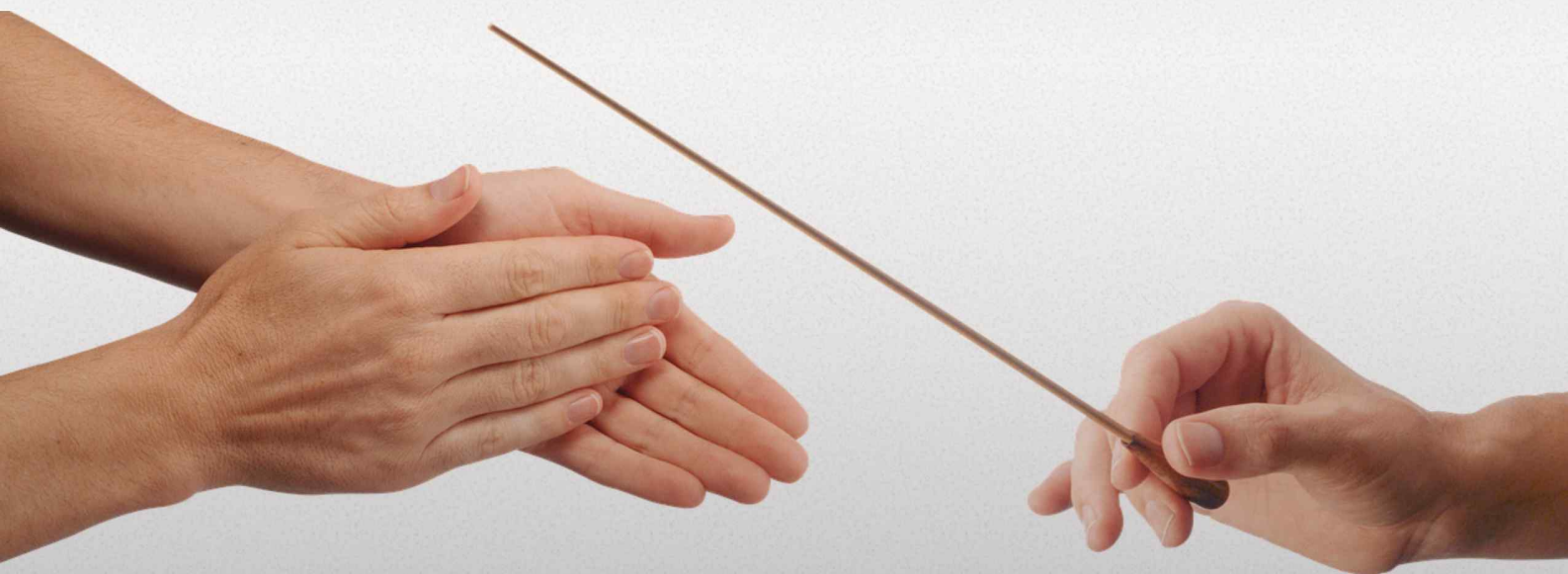


감상 큐알 코드

그동안 독서 연계 수업할 때 주로 만화로 구성되어거나 내용이 쉬운 책을 선정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책 읽기를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미디어가 더 친근한 세대여서 저도 쉬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찾아보면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많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우리 공유하고 함께 읽어요~!



전상진 음악샘의
수업 후기



PUBLISHED BY MUSICTLAND

지휘법 수업 후기

RECOMMENDED:
Anytime, Anywhere, Anyone

**MORE INFO AND
SOCIAL MEDIA:**
[Instagram_im._.sangjin](#)



지휘법 수업 후기

에디터. 전상진

왜 지휘법을?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이슈는 음악 교사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비대면 수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ICT의 장벽을 모두가 넘어야 했고, 기존의 대면 수업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수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어쩔 수 없이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음악 선생님들이 지휘법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음악 선생님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금도 지휘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가 진행한 지휘법 수업을 ‘나의 지휘법 수업 구성’과 ‘지휘법 수업 후기’의 순서로 간단하게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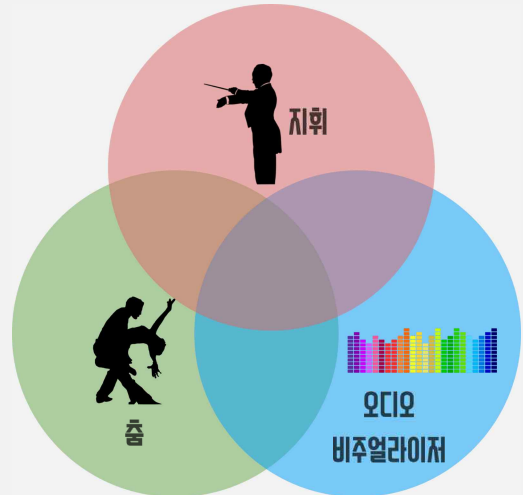
나의 지휘법 수업 구성

저는 지휘법 수업을 11차시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시는 크게 ‘지휘법 기초’, ‘제재곡 분석 및 연주’, ‘제재곡 지휘’의 3단계에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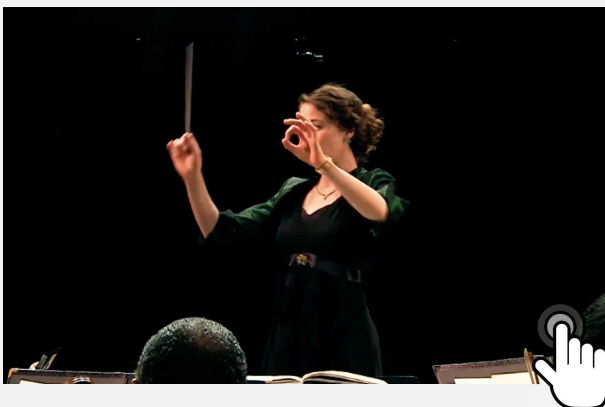
지휘법 기초는 총 3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1차시에서는 ‘지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답변과 함께 정답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함께 지휘 영상을 보며 계속 질문하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휘는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 학생들이 익숙한 활동인 ‘춤’, 그리고 음악의 흐름에 따라 형형색색의 막대가 움직이는 ‘오디오 비주얼라이저’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습니다.



지휘의 음악 요소를 ‘빠르기, 박자, 셈여림, 연주 타임িং’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은 ‘작품의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영상 자료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의 지휘자 비교 영상’과 ‘정명훈 지휘자와 원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은 지휘자에 따라 연주 결과가 각각 다른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은 차이콥스키의 말년과 슬프고 느린 제4악장과와의 관계성,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에서 보이는 감정 등을 다루며 음악에 분명히 지휘자의 작품 해석이 중요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작품의 해석’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은 뒤에 지휘할 제재곡의 배경 등을 알아보고 직접 연주한 후에 지휘하는 활동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2차시에서는 지휘봉을 든 손과 들지 않은 손이 각각 어떤 음악 요소를 지휘하는지에 대해 학습합니다. 실제 지휘를 하는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분석하게 되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중 ‘산왕의 궁전에서’입니다. 이 곡은 하나의 선율이 셈여림, 빠르기, 악기 편성이 변화하며 반복됩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곡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음악 요소와 변화하는 음악 요소가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이것에 유의하여 지휘를 관찰

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전 차시에 언급했던 음악과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춤의 관계처럼 지휘 또한 음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모듬 활동을 통하여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지휘봉을 든 손의 지휘를 배울 것을 안내합니다.

3차시에서는 실질적인 지휘 동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휘의 박자 도형을 지도했는데, 먼저 지휘 동작을 한 후에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이 먼저 나온다면 수업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지휘봉 대신 장구 열채를 손에 쥐고 정확한 박자에 책상을 쳐서 소리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박, 2박, 3박, 4박의 순으로 추가하고, 각 지휘를 할 때의 타점을 학용품 등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타점을 정확한 타이밍에 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활동은 앞으로 있을 제재곡 분석 및 연주를 할 때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5분에서 10분 이내의 ‘학습 순서 활동’으로 사용하며, 정확한 박자 치기가 되는 학급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책상을 치지 않고 눈높이와 배꼽 사이에서 실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지휘봉 지휘
지휘봉 지휘

계속 지휘해야 할 것?	일시적으로 지휘해야 할 것?
빠르기 박자 셈여림	음악의 시작 음악의 마침

제재곡 분석 및 연주는 총 3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1차시에서는 제재곡을 듣고 연주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학습 순서 활동’의 지휘 연습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가창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하였고, 제재곡에서 나오는 셈여림 및 스타카토에 유의하여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지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 주고 시간이 남는 경우 이를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저는 제재곡의 반주 음원을 3가지 음역 버전으로 준비하여 앞으로의 가창 및 지휘를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La donna è mobile)
E장조 (낮은 키)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La donna è mobile)
F장조 (교과서 권키)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La donna è mobile)
G장조 (조금 높은 키)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La donna è mobile)
A장조 (많이 높은 키)

2차시에서는 제재곡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학습 순서 활동’으로 지휘 연습을 하고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제재곡을 다시 부르며 학습 내용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재곡의 배경과 내용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저는 갓플릭스 선생님들의 “리골레토” 영상을 아주 잘 활용하였습니다. ^O^ 학습한 후에 제재곡이 오페라 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불렸는지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교사의 지휘에 맞게 노래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합니다.



3차시에서는 제재곡을 지휘에 맞추어 가창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지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의 지휘를 보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차시(전체에서 4차시)에서 배운 셈여림과 스타카토 지휘법을 상기하며 교사의 지휘를 보고 노래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같은 성별로 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은 저의 지휘에 따라 박자, 셈여림, 스타카토 등에 유의하여 노래하고, 다른 그룹은 노래하는 그룹이 지휘에 맞게 노래하였는지 피드백을 합니다. 저는 교사의 지휘에 맞게 노래하기를 형성 평가로 활용하였습니다. Pass와 Fail의 여부와 그 이유를 알려 주면서 연주와 지휘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것임을 각인시켜줍니다. 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룹은 다음 차시에서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연주하여 이해하기

p

mp

mf

f

ff

악사자 미싱 베르디 작곡

3박의 지휘도형

세가도(Legato)

일반형

스타카토(Staccato)

제재곡 지휘는 총 4차시로 구성됩니다.

1차시에서는 본격적인 제재곡 지휘를 시작함과 동시에 수행 평가에 대해 예고를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학생들은 장구 열채가 아닌 지휘봉으로 지휘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제재곡 반주 음원에 맞추어 올바른 박자, 음악의 시작과 중지, 셈여림, 아티큘레이션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는 수행 평가 전까지 계속됩니다. 수행 평가는 ‘지휘’와 ‘연주’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지휘’ 영역 학생이 제재곡 반주에 맞추어 지휘하는 것을 평가하고, ‘연주’ 영역은 학생들이 교사의 지휘에 맞추어 알맞게 가창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2차시, 3차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수행 평가의 ‘지휘’ 영역과 ‘연주’ 영역을 연습하며 피드백하였습니다. 이때쯤 학생들의 지휘 기능을 보았을 때 잘 따라오는 기수는 10차시에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기수는 한 차시를 더 연습한 후에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행 평가 직전의 수업에서는 꼭 10분 정도의 리허설 시간을 갖고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수행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4차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휘’ 영역과 ‘연주’ 영역에 대해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휘법 수업 후기

지휘법을 실시한 첫해에는 연주를 실시하지 않고 지휘만 실시하였습니다. 중등 교육의 여건상 학생들의 지휘에 맞게 연주하고 이를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연주를 전혀 넣지 않았는데, 이런 평가를 한 후, 실제 연주와는 관계가 없는 지휘를 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부터 연주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지휘법 수업을 연구하였고, 현재도 이때 연구한 지휘법 수업 방법대로 수업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휘법 수업의 장점은 음악을 다양한 연주 활동(가창, 지휘)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상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포괄적 음악성(Comprehensive musicianship)에서 강조하는 영역 간의 통합 학습에 가까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휘법의 장점



지휘법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유의할 점은 역시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연습을 한 차시 정도 더 부여하였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이 있는 만큼 각 활동의 깊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목표는 지휘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의 깊이(가창, 감상)가 너무 깊어진다면 소요되는 차시가 늘어나게 되고 학습자들의 흥미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깊이로만 다루고 해당 내용을 계속 고려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휘법 수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께 저의 부족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영상 출처

지휘법 기초 2차시 영상: Youtube, [Rebecca Lord](#).

제재곡 분석 및 및 연주 1차시 영상: Youtube, [전쌤입니다](#).

제재곡 분석 및 및 연주 2차시 영상: Youtube, [음플릭스](#).



현대 대중음악의 수많은 장르들은 R&B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다소 비약하면 현재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R&B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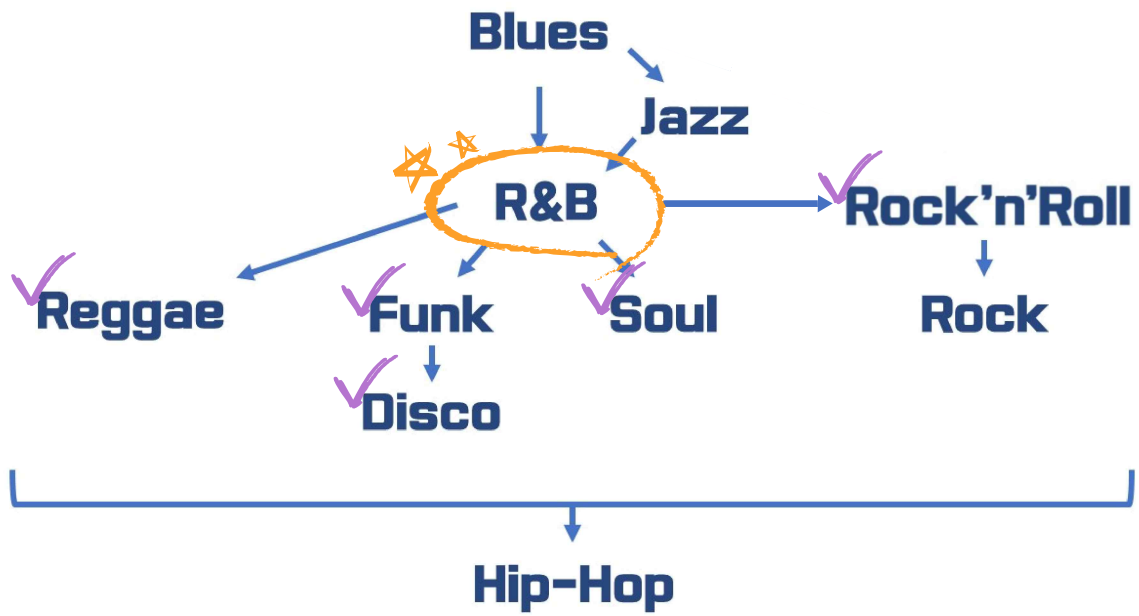
에디터. 전진우

R&B

R&B는 리듬 앤드 블루스(Rhythm And Blues)의 약자이다. 여기서 '리듬'은 재즈의 스윙 리듬을 의미한다. 즉, 스윙감을 더해 댄서블한 느낌을 강조한 블루스가 R&B의 기원이다. 잔잔하고 끈적한 네오 소울 풍의 R&B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1940~1950년대 초창기 R&B를 감상한다면 대부분 금세 납득한다. 초창기 R&B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R&B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경쾌한 재즈의 반주 위에서 블루스를 노래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R\&B = \underbrace{\text{♪ ♪ ♪ ♪ ♪ ♪}}_{\text{Swing Rhythm}} + \underbrace{\text{♪ ♪ ♪ ♪ ♪ ♪}}_{\text{Blues}}$$



▲ R&B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중음악 장르를 찾기 힘들다.

1940's R&B의 탄생

1940년대부터 재즈와 블루스가 결합된 음악이 나타났다. 이 음악을 초기에는 흑인종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Race music' 이라 칭하였다. 이후 1948년 빌보드지에서 이 음악을 'Rhythm and Blues' 라는 용어로 명명하였고,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 Louis Jordan & His Tympany Five <Let The Good Times Roll>
초기 R&B는 재즈 반주와 블루스 창법을 결합한 스타일이었다.

1950's R&B의 대중화와 로큰롤

R&B는 흑인들만 향유하던 음악이었으나, 1950년대 초반부터 백인들도 R&B를 즐기기 시작하며 점차 음악 산업의 큰 축이 되었다. 이후 R&B와 컨트리를 혼합한 로큰롤이 탄생하였고, 1950년대에는 로큰롤과 R&B를 혼용하며 같은 장르로 취급하는 일도 있었다.



▲ Little Richard <Tutti Frutti>



▲ Chuck Berry <Maybellene>

음악적으로 로큰롤로 분류하는 것이 옳겠지만 위 두 곡 모두 당시 빌보드 R&B 차트에 올라 있다. R&B와 로큰롤이 구분되지 않던 시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60's 시대와 발맞추는 R&B

1960년대의 R&B는 소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울은 기존 R&B의 사랑을 다루던 가사에서 벗어나, 흑인 문화와 흑인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등 R&B와 정서적인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음악적으로는 보다 거칠어진 발성과 많은 애드립 등이 소울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Ray Charles <What'd I Say>

소울 음악의 시초로 알려진 곡으로, 레이 찰스는 남는 공연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 Ben E. King <Stand By Me>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영구 보존하는 가장 유명한 소울 곡이다.



소울을 R&B의 하위 장르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R&B⊃Soul),

1960년대 사회적 흐름에 맞춰 변화한 R&B를 소울이라 여기는 견해도 있어요. (R&B=Soul) 저는 후자 쪽에 한 표!

1970's R&B의 새로운 모습

1960년대부터 R&B에서 파생된 장르들이 등장하고 이 장르들은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누리며 음악계를 휩쓸었다. 베이스와 드럼 등의 리듬 섹션을 강조하며 파생된 힙크, 힙크보다 bpm을 높이고 댄서블한 면을 강조한 디스코, 자메이카의 토속 음악과 결합하여 탄생한 레게 등이 바로 R&B의 영향을 받은 장르들이다.

Funk



▲ Earth, Wind & Fire <September>

광고 음악으로 삽입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다.



▲ Mark Ronson <Uptown Funk!>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히트곡.
음악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까지
1970년대 힙크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

Disco



▲ Bee Gees <Stayin' Alive>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사운드트랙으로 수록되어
디스코가 전세계 인기를 얻도록 만든 곡이다.



▲ 방탄소년단 <Dynam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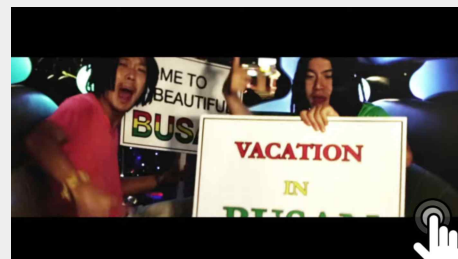
코드, 악기 구성, 리듬 등 디스코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다듬은 곡이다.

Reggae



▲ Bob Marley <No Woman, No Cry>

레게 장르를 상징하는 대표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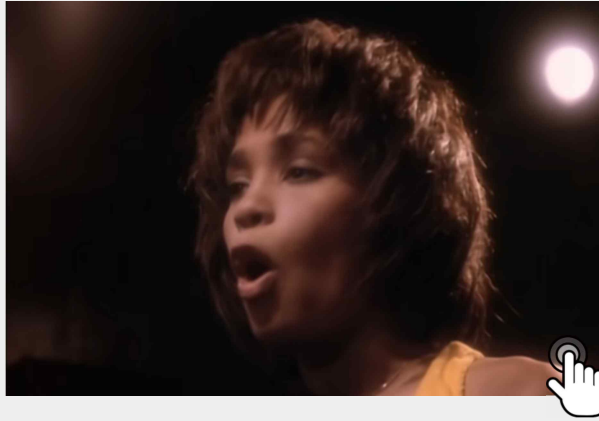


▲ 레게 강 같은 평화 <부산 바캉스>

예능 출연 등으로 다소 박한 평가를 받지만
국내 레게 아티스트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며
꾸준한 음악적 결과물을 발표하는 그룹이다.

1980~1990's 세계를 정복한 R&B

1980년대 컨템포러리 R&B가 등장한다. 컨템포러리 R&B는 일렉트릭 피아노나 현악기 등을 활용하고 팝적인 느낌을 더욱 추가하여 기존 R&B보다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 Whitney Houston <Saving All My Love for You>

휘트니 휴스턴의 등장으로 컨템포러리 R&B와 대중음악의 '디바'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R&B가 80년대 등장하는 컨템포러리 R&B예요!!

1990년대 이르러 컨템포러리 R&B는 힙합과 결합을 시도한다. 랩과 힙합의 리듬을 도입하여 새롭게 등장한 뉴 잭 스윙이 그 결과물이다. 뉴 잭 스윙의 등장으로 흑인 음악이 전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흑인 문화는 더 이상 비주류에 머물지 않게 된다. 물론 이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불후의 음악가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뉴 잭 스윙을 통해 우리나라에 흑인 음악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양준일,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뉴 잭 스윙풍의 음악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흑인 음악의 씨앗을 뿌렸다.



▲ Michael Jackson <In the Closet>

마이클 잭슨은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흑인 문화를 주류로 올려놓은 인물이다.



▲ 솔리드 <사고방식>

솔리드의 멤버들이 한국계 미국인이었기에 미국 본토의 R&B와 뉴 잭 스윙을 한국에 전파하였다.

선생님의
일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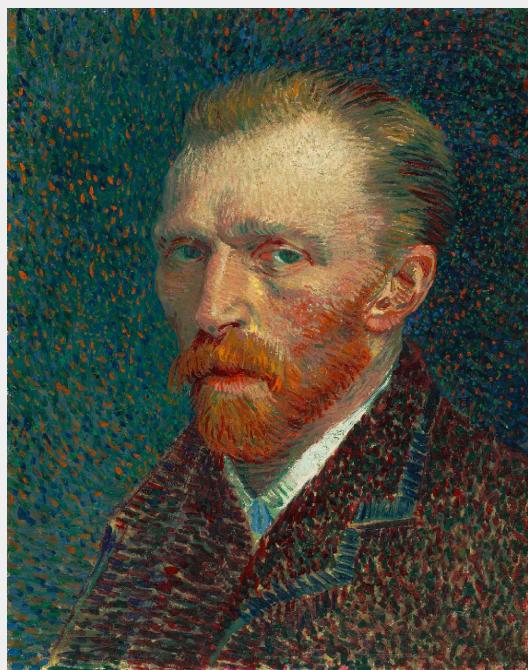


수업시간
OFF

예술 감상 인지 능력 향상 프로젝트!

뮤하샘과 떠나는 미술가와 작곡가 2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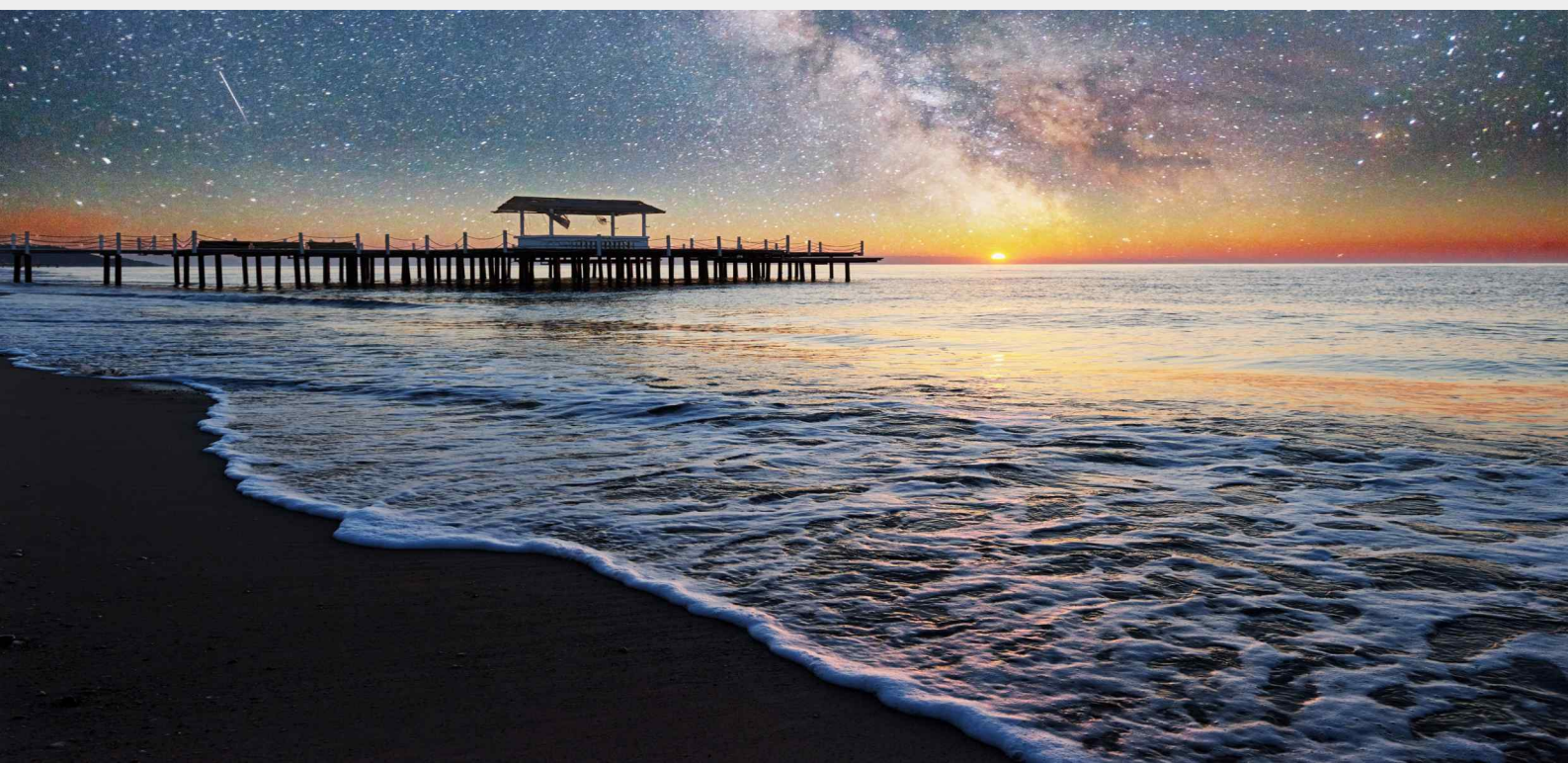
에디터. 노혜원



미술가 고흐



작곡가 드뷔시



고흐와 드뷔시



고흐 [Gogh, Vincent Willem van] 1853 ~ 1890

네덜란드 출신, 프랑스에서 활약한 미술가이다. 프로트 즈넬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서 사망했다. 1869년부터 1876년까지 헤이그, 런던, 파리에서 화상 구필의 조수로 일한 후 영국에서 학교 교사, 벨기에의 보리나주 탄광에서 전도사 일을 했고, 1880년에 미술가에 뜻을 두었다.

고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늦은 나이에 미술을 시작하여 10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1000여 점이 넘는 완성도 높은 습작을 한 열정적인 미술가였으나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11년 후인 1901년, 71점의 작품을 선보인 파리의 한 전시가 미술계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 사이에 순위가 매겨지고 있으며 그의 강렬한 그림들은 초기 추상화,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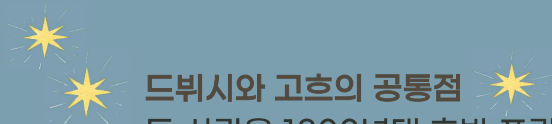
고갱이 고흐에게 준 자화상
고갱과 고흐는 인상주의 미술가
고갱 <첼로 연주자>



드뷔시 [Debussy, Claude Achille] 1862 ~ 1918

1862년 파리 근교의 생제르맹앙레에서 태어났다. 드뷔시가 어렸을 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피하러 임신 중인 어머니와 두 누이동생과 함께 칸에 있는 백모에게 보내지기도 했는데, 이때의 경험이 그의 교향시 '바다'의 밑바탕이 되었다. 드뷔시는 7살 되던 해에 백모의 지원 아래 피아노를 배웠다.

드뷔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이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가능한 모든 색채를 음악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그의 대표작인 교향시 '바다'이다. 일본의 판화가인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판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전 작품들과 달리 웅장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간직하여 인상과 음악의 기틀을 마련하고 근대와 현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낸 혁명가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드뷔시와 고흐의 공통점

두 사람은 180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활동했다.
각각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을 선보였다.



음악에서의 인상주의

19세기 말 프랑스 중심으로 나타난 문학의 상징주의와 미술의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 음악은 낭만주의에서 현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때 미술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인상주의는 대상을 빈틈없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전통적 회화의 표현 방법을 거부하고 빛에 의해 변화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인상주의 미술은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간의 인상을 색채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상의 윤곽기 뚜렷하지 않고 마치 빛이 사물을 감싸안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인상주의 음악은 화성을 사용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며, 선율에 5음 음계, 온음 음계, 선법, 리듬 등을 사용하여 이전 시대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빛에 의해 자연이나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각 악장에 시리즈로 연계성 있게 묘사하며 각 악기들로 소재를 표현한다.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선율, 화성, 리듬, 음색, 형식 등 기존 독일 낭만주의 음악과는 매우 다른 음악 언어를 형성하였다.



미술에서의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 미술의 한 경향이다. 인상주의 미술은 기존의 고정된 회화 형식, 즉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주력하는 아틀리에 미술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물의 고유한 색을 부정하고 태양 광선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해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인 색채를 포착하여 밝은 그림을 그렸다.

인상주의 명칭이 유래된 모네의 <인상, 해돋이>에서 명확한 선이나 선명한 색채보다 순간의 느낌을 화폭에 담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인상주의 그림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보고 느낀 순간적인 감정만을 그리려 하였고,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식과 색채적 표현 기법 등이 다양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동 시대에 문학과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드뷔시 음악과 어울리는 고흐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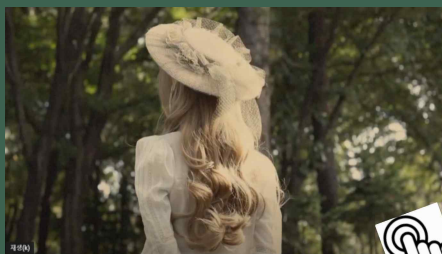
'아라베스크'와 고흐의 대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에는 휘몰아치는 음악과 그림 속 느낌이 비슷하다.



'더 리틀 셰퍼드(The Little Shepherd)'와 '아몬드 나무'는 드뷔시와 고흐가 각각 딸과 조카를 위해 만든 작품이다.



'아마 빛 머리를 한 소녀(La Fille aux cheveux de Lin)'와 그림 '해바라기'도 황금빛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흐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은 고갱과 다빈치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고흐에게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 이보다 먼저 제작된 아들의 <밤의 카페 테라스>나 <론 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별이 반짝이는 밤의 정경을 다루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커 보이는 셋별밖에 없는 시골을 보았다.”고 했다. 이 셋별은 그림 가운데 왼쪽에 있는 커다란 흰 별일 것이다. 그가 그린 밤하늘에서는 구름과 대기, 별빛과 달빛이 폭발하고 있다. 황량하고 짙은 파란색 하늘은 세상의 종말을 연상케 하고, 그 위로는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떠 있다. 달과 별의 둘레에는 뿌옇게 무리가 저있다.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하늘은 굽이치는 두꺼운 붓놀림으로 불꽃같은 사이프러스와 연결되고, 그 아래의 마을은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하다. 마을은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고안되었는데, 교회 첨탑은 고흐의 고향 네덜란드를 연상시킨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밤 풍경을 기억과 상상을 결합시켜 그렸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하고 있다. 수직으로 높이 뻗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이프러스는 전통적으로 무덤이나 애도와 연관된 나무지만 고흐는 죽음을 불길하게 보지 않았다.

미술가와 작곡가의 음악 수업 융합 내용

1. 인상주의 음악을 설명해 보세요.
2. '별'을 주제로 한 음악과 문학 작품을 찾아보세요.
3. '별이 빛나는 밤'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해 보세요.
4. 선택한 음악을 들으며 명화 컬러링으로 느낌을 살려 색칠해 보세요.
- 5 고흐에게 밤하늘은 어떤 의미였나요?
 -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 별이 반짝이는 밤의 정경을 다루었다.

고흐 밤의 카페 테라스



고흐의 그림의 배경,
고흐가 그림을 그린 실제 장소

고흐는 아를르의 포룸 광장(Place du Forum)에 자리한 야외 카페의 밤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을 그리던 무렵부터 밤에 작업하기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고흐는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의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바로 이 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하지. 창백하리만치 옅은 하얀 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

고흐의 회화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색채가 형태나 구성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감정이나 대상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 그는 눈 앞에 있는 것을 똑같이 재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관에 따라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짙은 파란색과 밝은 노란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는 물리적 세계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철학을 엿보게 해 준다.

미술가와작곡가의 음악수업 융합 내용

1. 인상주의 음악가 3명을 말해 보세요.
2. 드뷔시의 '달빛'을 감상해 보고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
3. 선택한 음악을 감상하며 명화 컬러링으로 느낌을 살려 색칠해 보세요.
4. 나만의 카페 플레이 리스트 10곡을 만들어 보고 이유를 작성해 보세요.
 - 카페 음악회, 테라스 음악회 등 제목을 작성한다.
 - 명화의 느낌과 비슷한 음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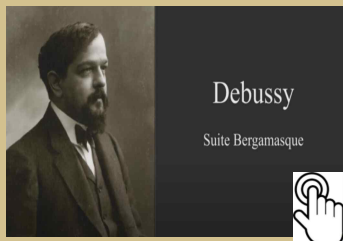
고흐와 드뷔시의 작품 더 보기



<화가의 방>



<론강의 별이 빛나는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기쁨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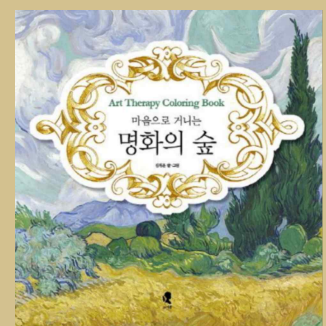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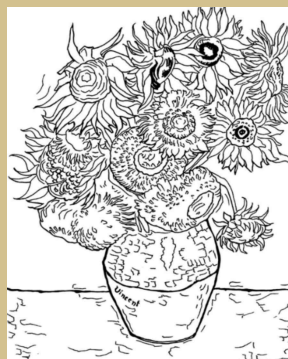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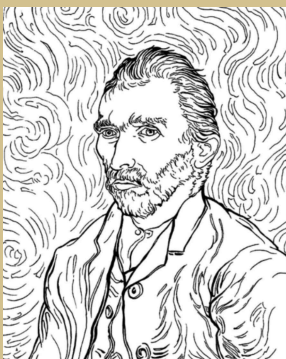
<달빛>



영화 컬러링 수업 활용 방법



그림과 음악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후 자신만의 느낌으로 컬러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색과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이유를 말해 본다.



<영화 컬러링 추천 도서>

기타가 모자라도 괜찮아!

연습용 기타프렛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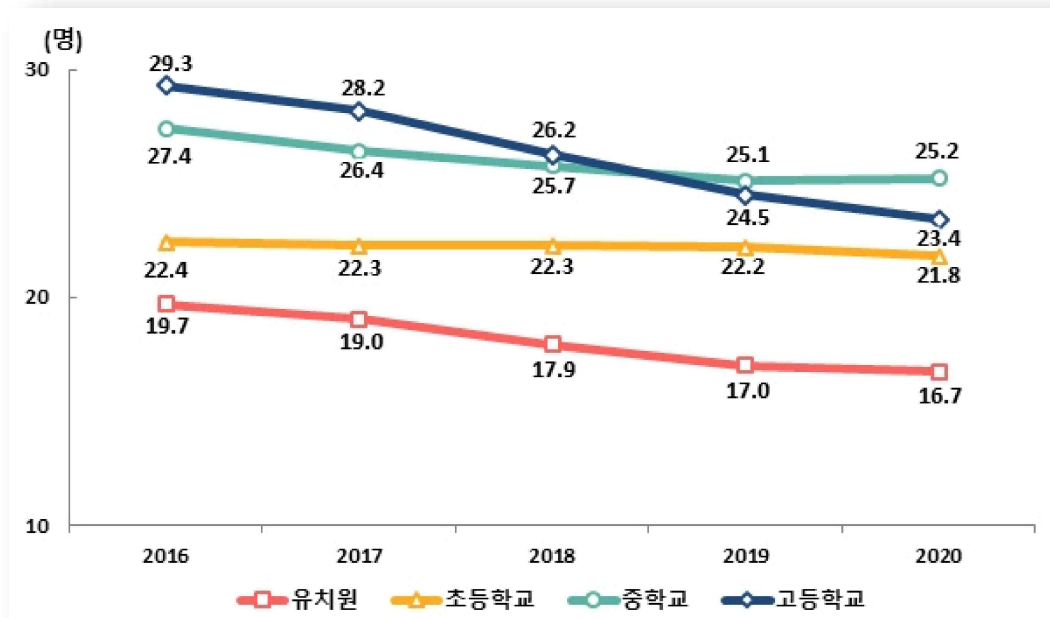
에디터. 전진우

Target

기타가 적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조용히
운지법을
익히기 원하는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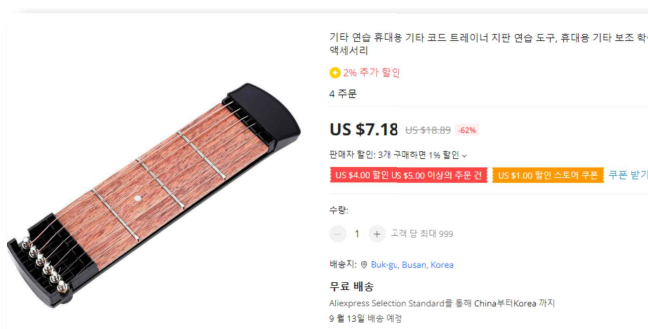
지판을
6프렛 이하로
활용하는 선생님들



교육부 통계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기준 약 25명.
기타를 학급 인원수대로 구비하려니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다는데 포기할쏘냐!!

#01 구입



▲ A*iExpre**



▲ 조달청 S2B

필자는 A*iExpre**에서 개당 약 7달러에 구입하였다. (내돈내산!!)

그러나 추후 S2B에도 동일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환율을 고려하면 S2B가 더 저렴하다.

괜히 사비를 쓸 필요가 없었다...

#02 패키지



▲ 매우 성의 없어 보이는 박스



▲ 내부를 열어 보면 싸구려 용 파우치에 담겨 있다.



▲ 구성품은 달랑 프렛보드와 육각 렌치

#03 제품 구조



프렛보드는 슬라이드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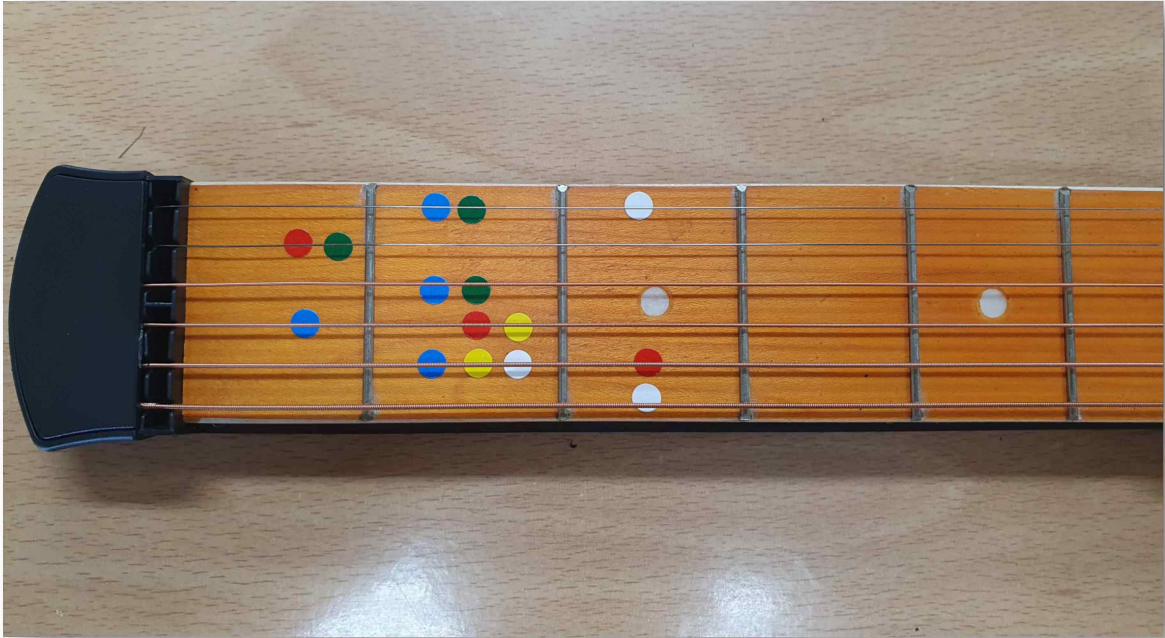
프렛 간격은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와 비슷하나 넥은 조금 얇다고 느껴진다.



실제 기타줄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동봉된 렌치를 이용하여 장력 조절도 할 수 있다.

#04 수업 활용



Chord progression and fretboard diagrams for the song "I'm a Fool for You" (이젠 당 신이).

Chord Progression:

G D7 Em B7 C D7 G D7

Lyrics:

이젠 당 신이- 그 립 지 않죠- 보고싶은마 음도 없 죠 흠--

사 랑 한 것도- 잊 혀 가 네요- 조 용 하 게

알 수 없 느낀- 그 런 내 맘이- 비가오면는 물이 나 요 흠--

아 주 오 래전- 당 신 떠 나던- 그 날 처 - 럼

이젠 켜 잠은- 데 - 사랑따윈자버 렸 는 데 예--

Fretboard Diagrams:

G 코드

1	2	3	4	5

D7 코드

1	2	3	4	5

Em 코드

1	2	3	4	5

B7 코드

1	2	3	4	5

C 코드

1	2	3	4	5

코드 다이어그램을 헛갈리는 학생들을 위해 색깔별로 코드를 마킹해서 활용하였다.

또한 PPT의 코드에도 색깔을 표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쉽게 기타 코드를 익힐 수 있었다.

INTERVIEW

교사연구회에서 동호회까지! 음악교사 연주 동아리 아인클랑

'아인클랑 (Eine Klang)'



에디터 : 홍정선

음악교사로서의 로망, 바로 연주활동입니다.

음악수업 및 음악교육활동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음악활동을 경험하지만, 음악 전공을 위해 뜨겁고 추웠던 시절, 치열하게 연습하고 노력한 추억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이천 중등음악교사 연구회에서 멋진 연주단체로 거듭난 '아인클랑'을 만나보실래요?

Q. 아인클랑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인클랑입니다.

아인클랑은 독일어로 '하나되어 울린다' 라는 의미를 담은 뜻으로, 이천 중등음악교사 연구회에 뿌리를 둔 단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주관 2018 교사예술 동아리에 선정되어 이천, 여주 지역 중등음악교사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수업자료 개발 및 수업 나눔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에게 서로 악기 연수를 주고 받으며 음악 교사 및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공 악기를 살리고, 여기에 더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교육용 악기도 레파토리로 편곡하여 연주하며 연주자와 교육자의 역할에 부합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천, 여주 지역 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출등의 이유로 학교를 옮기신 원년멤버 선생님들도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 연주자이지만 저희와 악기 연수로 인연이 닿아 함께 객원 멤버로 활동해주시는 퍼쿠셔니스트 선생님도 계세요. 연주를 기획하며 그때그때 공연에 필요한 전공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퍼쿠셔니스트를 제외한 섭외되는 모든 분들도 중등음악교사입니다.

(2022년 활동 멤버 : 류선미, 문재윤, 조혜정, 최현, 김형선, 김시온, 이은솔, 김동환, 한송이, 안효주, 김다정, 이연재, 최선아 선생님. 그리고 퍼쿠셔니스트 김현빈)

Q. 음악교사 연주 동아리만의 장점, 특징 그리고 운영상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아무래도 전공자들이 모인 자리이다보니 연주 악곡을 정하거나 연습을 할 때 자유롭게 음악적 얘기를 나누며 풍부한 레파토리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곡을 얘기 했을 때 그거를 함께 구현해보려 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주한 영상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또 음악선생님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이렇게 열심히 즐기며 노력하는 선생님의 연주 모습을 아이들과 공유하며 수업 시간의 라포를 쌓아가기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단점은 교사들의 전공이 매해 발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편성 구성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한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해마다 편성이 고루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피아노 전공 선생님이셔서 초반에 편성 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주를 준비하고 발표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늘 가을에 하는데 연주 시기가 또 학교의 다양한 행사 및 교육과정이 집중되는 시기라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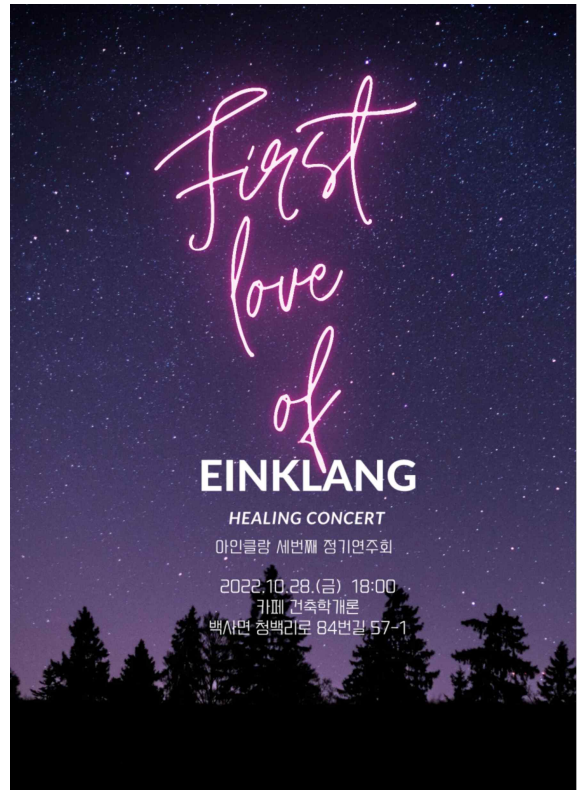
이번에 가곡 <첫사랑>을 선생님의 자녀인 7살 어린이가 함께 부르는 공연을 했는데요. 연주 후 사회를 보며 무대에서 보니, 꽤 많은 관객들의 눈가가 축축해져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노래에서 전달되는 감동,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Q. 공연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2023년 10월 28일에 정기공연을 하였습니다. 공연 주제는 'First love of Einklang-첫사랑' 입니다.

음악교사로서 음악에 품었던 열정의 첫사랑, 코로나로 멈췄던 아인클랑 연주에 대한 그리움의 첫 사랑, 그리고 모두의 마음 속에 품었던 설렘의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의 시작으로 다양하게 꺾어가는 사랑의 감정들을 음악에 담으려고 레파토리를 구성했습니다.

서양 악기 뿐 아니라 국악기도 함께 선보이며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색도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장르와 편성을 좀 더 다채롭게 하여 너무 클래식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운 곡들이 아니게 구성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카페를 대관하여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Q. 끝으로 전국의 음악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음악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연주자의 모습을 상상해보았고 지금도 꿈을 꾸고 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 많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지만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고 연주를 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나 뿌듯함이 있습니다. 1인 교과로 현장에서 고분분투 하고 계실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교류와 성장이 될 수 있는 연구회, 연주 동아리 모임이 자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지역에서도 많은 음악교사연주 동아리가 생겨서 언젠가는 지역단위로도 함께 모여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꿈꿔봅니다. 현장의 모든 음악선생님 힘내시고 꿈을 응원합니다.

편집 후기



에디터. 전상진

안녕하세요! 4호부터 에디터로 참여하게 된 전상진입니다!

전부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던 팀에 들어올 수 있어 무한 영광입니다!! 뮤직T랜드 4호를 준비하며, 에디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기사를 쓰며 저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정말 기쁩습니다. 4호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애쓰신 에디터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음악 선생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에디터. 김서연

교직은 참 해마다 새롭고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겠지요. 많은 교사들이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면 조금 안심도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요. 뮤직트랜드가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디터. 이지영

악동뮤지션의 '소재' 란 곡이 생각나는 집필 기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새로운 도전을 덜 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일상생활이든 수업이든 좀 더 창의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에디터. 전진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대중음악사의 테마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프린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분량상 다루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했습니다.



에디터. 홍정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뮤직트랜드 소식 궁금하셨죠?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에디터님들과도 오랜만에 소통하고 매거진 작업을 했어요.
뮤직트랜드가 있어서 선생님들과 더 소통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에디터. 노혜원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것들〉, 여유 있는 시간, 뮤직트랜드 매거진이 구독자분들께 침이 되길 바랍니다



뮤직T랜드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음악교사로서 나누는 이야기, 음악교사로서 알아야 할 정보,
음악교사로서 뜻깊었던 이야기 등등 우리의 음악교육의 삶을 역사로 남겨봅시다.
이제 1악장 시작입니다. 독주곡에서 천명의 교향곡으로 만들어봅시다!



MUSICTLAND (뮤직트랜드)

4호 발간일	2023년 6월
발행인	홍정선 · 노혜원 · 이지영 · 전상진 · 전진우 · 김서연
메일	musicland@naver.com
인스타그램	@musiclan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인 뮤직트랜드 발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